

시험

30

UP

30

UP

2025
김종규
헛총

옛말리는 두문 총정리

선행정학

시험 직전 막판 뒤집기

2025 헛총 선행정학(헛갈리는 부분 총정리 선행정학)을 펴내며

“

일선 수험현장에서 수십년간 수많은 수험생들을 지도해 오면서 느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합격생들과 불합격생들의 행정학 공부방법(특히 마무리)상 차이점입니다. 시험을 앞둔 모의고사에서도 일관되게 고득점을 하는 상위권 수험생들과 안타깝게도 점수가 기록이 심하거나 합격권과는 거리가 먼 60~70점대에 맴도는 하위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의 원인이 뭘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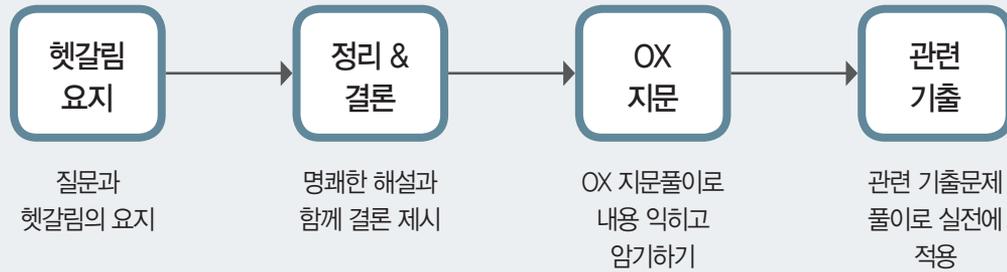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학은 국정교과서가 없다 보니 학설과 이론간에 서로 대립·모순되고 헛갈리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행정학을 어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암기해나가지 않으면 절대 고득점이 안됩니다. 합격생들이나 고득점군 수험생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어있는 반면, 불합격생들이나 저득점군 수험생들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은 단체장인가, 지방의회인가?]에서 결론은 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은 단체장이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지방의회입니다. 즉 [외부대표 : 단체장, 주민대표 : 지방의회] 이런 식으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또 [자본예산은 안정화를 저해하는가, 안정화에 기여하는가?]에서 결론은 경제안정화에는 기여하지만 재정안정화는 저해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 : 안정화, 재정 : 불안정]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또는 “안정”이란 단어에만 매달려 있으면 틀리는 문제는 반복해서 계속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60~70점대에 머무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정리를 해준다면 바로 점수가 30점은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정리할 시간과 여유가 안된다면 제가 해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이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3월에 공단기에 오시면 이 교재로 강의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학, 헛갈리는 부분 160제 총정리 특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인강(총16강)으로도 바로바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 교재와 강의는 주제별로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별로 헛갈림의 요지를 제시하고 -> 명쾌한 결론(해설)을 제시한 다음 -> OX풀이로 지문암기를 시켜주고 -> 관련기출문제를 제시하여 기출문제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핵심은 OX지문 암기입니다. 9/7급 막론하고 초시생, 재시생이나 군무원, 공기업, 경간부, 경쟁승진 등 모든 수험생들에게 도움되는 사상 최초의 역대급 특강입니다. 극히 일부 주제를 제외하고는 9급수험생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니 반드시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 교재는 최근 2~3년간 질문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기출문풀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높은 부분, 불합격생들 상담결과, 그리고 합격생 인터뷰 등을 토대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햇갈려하는 취약부분과 신경향이슈를 카스파 합격생 연구원들과의 열띤 토론을 거쳐 기출기반으로 엄선·정제하였습니다.

요즘 행정학은 정형화된 판박이형 기출문제만 뒤따라가는 뒷북치는 식의 소극적인 공부방법으로는 절대 고득점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7~8문제는 늘 햇갈리거나 새로운 문제가 출제됩니다. 당락은 그런 문제에서 결정됩니다. 애매하고 햇갈리는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지금까지 많이 만나왔지만 앞으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정리할건 정리하고 대비할건 대비하는 한발 앞서가는 적극적인 공부방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60~70점대에서 점수가 오르지 않는 수험생들은 뭔가 이유가 있고 그 이유의 대부분이 바로 햇갈리는 부분에 대한 교통신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햇총선행정학으로 그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교재나 선생님의 공부를 하셨더라도 이 햇총선행정학 만큼은 반드시 한번 접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교재와 강의를 접하는 순간 “아하,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시험을 봤으니 점수가 나올리 있나?”하는 통렬한 반성과 후회가 찾아들 겁니다. 행정학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점수를 확실하게 30점 UP시켜 줄 수 있는 마법 같은 교재·강의입니다.

2025. 1. 27.

카스파 연구실에서 저자

김중규

합격생 추천의 글

행정학은 꼼꼼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저는 초시부터 재시까지 김중규 교수님의 커리를 모두 따라왔습니다. 모든 커리가 좋았지만 헷충은 특히 행정학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따로 테마로 정리해서 알려주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한 개념들에 대한 정리에 있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학은 같은 단어를 써도 어디에 어떤 문맥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아예 다른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가 수험문제풀이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학 공부에 있어서는 개념+기출+동형 그 무엇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가장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목 특성상 꼼꼼한 공부가 필요한데 교수님의 커리를 믿고 본인이 꼼꼼히 공부한다면 행정학 고득점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헷갈리는 개념들을 잘 숙지하시고 여다나에 정리해서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024 서울7급 합격 박주원 -

행정학 고득점의 지름길, 헷충

저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지나간 부분을 나중에 한번에 정리하려면 찾아다니기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헷충을 통해 헷갈리는 부분을 보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문제 풀이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개념과 관련되는 문제가 함께 실려 있어 기출문제집을 다시 찾아봐야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최근 행정학에서 난이도 있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 암기보다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헷충을 통해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문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되어 출제되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학 고득점으로 가기위한 지름길로 헷충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 2023 국가7급 합격 노성군 -

행정학 킬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교재

수험 과목으로써 행정학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처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지를 구성하여 수험생들이 개념을 알고도 틀리는 과목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헷충 교재와 강의는 이러한 행정학 수험생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안을 자신 있게 마킹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방주사와 같은 콘텐트입니다. 헷충은 이미 행정학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수험생들에게는 빠른 시간에 핵심 주제를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회독용 교재이며, 공부 중인 수험생들에게는 행정학 고득점에 빠져있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채워 넣어주는 교재입니다. 꼭 강의와 함께 교재를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며, 회독 후 한층 단단해진 행정학 지식과 유연해진 문제풀이 스킬에 여러분 스스로 놀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한 행정학 전략교재 헷충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더 가깝게 앞당기시길 바랍니다.

- 2022 서울9급 합격 김준범 -

본인을 믿고, 교수님을 믿으세요!

처음 행정학 공부를 시작하고 첫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김종규 교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체계적인 교재와 커리큘럼에 큰 믿음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정학 100점을 목표로 삼았고, 기본강의와 기출강의를 차근차근 따라갔더니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기본 85점은 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약간 기고만장해져, 다른 강의는 들을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고 기본서와 기출 회독수만 늘려갔지만 85점의 벽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만난 것이 헛총 강의였습니다. 헛총강의로 알쏭달쏭했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되니, 더 심화된 내용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정학적 마인드와 사고가 가능해져 신경향문제나 고난도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 없이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불의타 고난도 특강, 법령노트 선행정학, 모의고사 강의 등을 통해 100점을 위한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덕분에 24년 서울시 7급 시험에서 행정학 100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과연 될까 라는 의구심은 거두시고 반드시 된다는 마음으로 교수님만 믿고 따르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겁니다.

- 2024 서울7급 합격 신지연 -

행정학을 어려워하는 분들께 강추

통념과 다르게 행정학은 암기가 아니라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인문과학도 그럴겠지만 특히 행정학은 한 개념어가 일의적이지 않고 학파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문제와 선지에 맞추어 개념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파, 학자와 대응되는 개념 암기만으로는 고득점에 절대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교재인 헛총은 어느정도 암기와 이해가 되어 있는 70~80점대의 수험생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부딪치게 되는 자연스러운 의문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추론들을 담아 그것들에 대한 김종규 교수님의 명쾌한 해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서에 있는 헛갈리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회독할 때에나 이후 단권화할 때에도 좋습니다. 특히 인문과학적 베이스가 없어서 행정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해설을 읽다보면 헛갈리는 부분을 과외 받듯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023 서울7급 합격 문아현 -

헛갈리던 내용을 명확히 이해시켜주는 책

행정학은 기본서와 기출을 어느정도 공부하고 나면 헛갈리는 내용들이 많이 생깁니다. '앞에서는 맞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왜 또 아니라고 하지?' 하며 책을 뒤적거리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헛총'으로 헛갈리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동되는 부분들을 묶어서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스스로 헛갈리는 부분을 찾는 것보다 시간과 에너지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또 구어체로 설명이 되어 있어 이해하기 까다로운 개념들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문제들이 함께 실려있어 개념을 알맞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기도 좋았습니다. '헛총'을 디딤돌 삼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 2022 국가9급, 서울9급 합격 허소정 -

Ch.01 행정학의 기초이론



Ch.01 Themes

	1회독	2회독	3회독
01 정치행정이론론과 정치행정일원론에서 정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2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본질적 원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3 진보주의 & 보수주의 정부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4 포스트모더니티 & 인간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5 포스트모더니티 & 융합 · 통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6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7 바우처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8 민영화와 서비스의 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9 공익의 실체설과 갈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공리주의적 공익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공익의 절충적 실체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내용적 합리성 & 실질적 합리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가외성의 특성 중 중첩 & 중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기술성과 기술적 행정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Wilson과 기술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행태론과 가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체제론과 개방체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신행정론과 고객중심의 행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현상학 & 행태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현상학의 연구대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공공선택이론과 정치 · 행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공공선택이론과 대응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신제도론과 상호작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신제도론과 제도의 지속 · 변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신공공관리론과 책임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신공공관리론과 임무중심의 행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8 거버넌스 유형과 기업형정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9 논변적 접근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0 신공공서비스와 공익의 본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1 NPM과 행정의 본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 NPM과 PCM에서의 정부역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행정재정립운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4 분절화와 NPM · GOV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5 넛지이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6 공공가치관리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숙지도별 학습능력

70% 이상(19개 이상) 숙지 : 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0% ~ 70% 이상(14~17개 이상) 숙지 : 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0% 미만(12개 이하) 숙지 : 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2025 선행정학 p.86

아 헛갈려!

누진세제도 같은 복지정책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일종의 수직적 공평으로 사회주의적 요청의 산물인데 왜 형평이론에서는 수직적 공평을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기회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인지, 수직적 공평인지와 공채 발행 등 세대 간의 공평이 왜 수직적 공평인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정리

- ① 형평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기준(기회기준 or 결과기준)에 의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논의되어 오다보니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거저거 무리하게 연결시키지 마시고 **“수평적 공평은 같은 것은 같게, 수직적 공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기본개념에만 충실하세요.
- ② 그리고 **누진세의 경우**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 개념으로 **사회주의적 요청의 산물**이지만 **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제사회적인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등장한 제도이지 사회주의의 고유한 제도는 아닙니다.
- ③ 또한 공채발행의 경우 미래세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사업의 비용은 후손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바로 공채발행제도이므로 공채발행 등 세대 간 공평은 수직적 공평에 해당합니다.
- ④ 아래 정리를 나누어 숙지하시고 더 이상은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래 결론들을 서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결론1] 결과기준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 ① 같은 것은 같게 - 다른 것은 다르게
- ② 욕구이론 - 실적이론
- ③ 사회주의 - 자유주의

다실직자

[결론2] 기회기준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 ① 기회의 공평 - 결과의 공평

[결론3] 누진세 & 대표관료제

- 사회주의적 요청(요소) O
- 사회주의 제도 X

[결론4] 공채와 공평

- 공채(공개경쟁채용) : 수평적 공평
- 공채(공채발행) : 수직적 공평

OX

- [1]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수직적 공평이라 한다.
- [2] 임용할당제(대표관료제)와 누진세는 수직적 공이다.
- [3]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중시하는 욕구이론은 수평적 형평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 [4] 일반적으로 기회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에, 결과의 공평은 수직적 공평에 각각 부합된다.
- [5] 정부가 환경보존을 위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

[1] X [수평적 공평] [2] O [3] O [4] O [5] O

10

유연근무제

2025 선행정학 p.746

아 헛갈려!

유연근무제의 구분이 여러가지인데다가 최근에 바뀌어 많이 헛갈립니다.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제의 관계도 헛갈려요... ㅋ

정리

- ① 유연근무제는 이론상(학자들) 분류와 실무상(인사혁신처예규) 분류가 좀 다릅니다.
- ② 그러나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에 관한 인사실무제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예규 기준으로 공부하는게 맞고 시험에서도 그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 ③ 다만, **2023년 개정된 인사혁신처 예규에 의한 달라진 분류내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종류(2020 인사혁신처 예규)

시간선택제 근무제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주 15~35시간) 근무하고 근무시간비율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정규직 공무원
탄력 근무제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범위안에서 필수근무시간대(10:00~16:00)를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10시~19시 등)
	근무시간 선택형	1일 근무시간(4~12H)을 조정하되, 주5일 40시간 근무 유지
	집약근무형	1일 근무시간(10~12H)을 조정하여 주 40시간 근무를 주 3.5~4일로 압축하여 근무
	재량근무형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근무 인정
원격 근무제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가정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업무처리 및 결재
	스마트워크 근무형	사무실이나 집이 아닌 주거지 근처 원격근무사무실(smart office)에서 인터넷망으로 사무처리

●유연근무제의 종류(2023 인사혁신처 예규)

유형	개념	활용방법(종류)	
탄력 근무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각, 근무시간, 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 시간 자율 조정
		근무시간 선택형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 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집약근무형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 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재량 근무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는 근무형태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로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	
원격 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변동 불가
		스마트워크 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변동 불가

OX

- [1] 인사혁신처예규상 재택근무형은 탄력근무제에 포함된다.
- [2] 재택근무형은 장소상 유연근무제에 포함된다.
- [3] 2023 인사혁신처 예규상 재량근무형은 탄력근무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1] X [포함되지 않는다] [2] O [3] O

0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관심사항

2025 선행정학 p.767

아 험갈려!

왜 자치권이나 지방분권은 주민자치의 관심사항이 아닌가요? 영미형의 주민자치가 대륙계의 단체자치보다 더 완전하고 이상적인 자치 아닌가요?

정리

영미형의 주민자치가 대륙계의 단체자치보다 더 완전하고 순수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관심사항"이라는 말은 아직 미흡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 ① 자치권 : 주민자치는 지방자치가 잘 된 나라라서 자치권이 고유한 권리로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반면, **단체자치**는 그렇질 못하기 때문에 **자치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 ② 지방분권 : **주민자치**는 자치의 본질을 단순히 중앙으로부터 전래된 분권화의 결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방분권보다는 **주민참여**에 더 관심을 갖는 반면, **단체자치**에서는 자치의 본질을 주민과의 관계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로부터 분권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적 체제, 단체자치는 중앙집권적 체제가 강한 나라에서 발견됩니다.

[결론]	[단체자치]	[주민자치]
① 체제 · 역사	중앙집권	지방분권
② 자치의 본질	지방분권	주민참여

OX

- [1] 지방분권은 단체자치의 특성이다.
- [2] 주민자치는 지방분권화를 핵심으로 한다.

[1] O [2] X (주민참여를 핵심으로 한다)

Q1

중요도 ■■■ 난이도 ■■■

2015 서울7급

다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 ②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 ③ 주민자치는 지방분권화를 핵심으로 한다.
- ④ 주민자치는 대내적 자치라고 할 수 있다.

2025 선행정학 p.767

정답 및 해설

답 ③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핵심으로 한다. 단체자치가 단순히 지방분권을 자치의 본질로 이해한다면, 주민자치는 주민참여를 본질(핵심)로 여긴다.

- ☑ ① [O] 단체자치는 국가와 자치단체와의 관계(대외적 관계)에, 주민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대내적 관계)에 중점을 둔다.
- ② [O] 단체자치는 법률적 측면(법인격 부여 문제)에, 주민자치는 정치적 측면(풀뿌리 민주주의)에 중점을 둔다.
- ④ [O] 단체자치가 대외적으로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치단체에 의한 자치라면, 주민자치는 국가와는 무관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지방자치를 말한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주요 관심사항

주민자치	단체자치
지역주민과의 관계	중앙과 지방의 관계
민주주의	지방분권
주민참여	법인격
지방선거	자치권
자치단체 기관 구성	
자치계층제	

서
공
사

2025
김종규
햇총
선행정학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 TEL. 02-532-5280~1
gong.conects.com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사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5판 2025년 1월 24일

펴낸이 김종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값 23,000원

ISBN 979-11-92405-66-7